

“새만금 예산 복원 다짐”

민주윤준병 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앞두고 “농산물 가격안정 재해복구비 지원 확대 농업재해보험 국고지원 상향 요구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0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브리핑 시간을 갖고 “새만금 SOC 예산 복원과 농산물 가격안정 등이 이루어지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10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번째 국정감사로 정부여당의 실정과 폭주를 견제하고 ‘유능한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먼저 전북의 주요 과제인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과 원팀을 이루며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위원인 윤 의원은 이어 “내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민주당의 후속입법 대안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통해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입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일본이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약 7800t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예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정부를 상대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또 농업재해대책을 위한 재해복구비 지원 확대와 농업재해보험 국고지원 상향 등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국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역 내 2~3명의 경쟁 후보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뉴시스



황영석·윤정훈 도의원, 새만금 예산 살리기 릴레이단식 돌입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과 윤정훈 의원(무주)이 10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 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단식과 함께 2차 식판을 단행한 황영석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부처 요구액이 난도질 당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매우 어이가 없다”며 “무자비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고 상처받은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의원은 “새만금SOC 예산에 대한 정부의 예산권 남용으로 인해 전라북도의회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슬프다”며 “결연한 각오로 끝까지 저항해 우리의 목소리가 중앙 정치권에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민주 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2024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전면 폐지를 앞두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물류비 지원내역(2018~2022년)’을 보면, 정부가 농식품 수출업계에 지원한 물류비는 연평균 약 330억원 규모다. 그러나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24년부터는 수출물류비 지원 전면 폐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들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내 수출 농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수출물류비(항공·선박·포장 등) 지원이 끊기게 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물 특성상 기후 변화 및 농업재해 등 영향으로 농산물 내수가격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수출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또한 우리의 수출품목은 가격 대비 부피가 큰 신선농산물과 소규모 농식품 품목이 많아 물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편이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 폐지시 농가 수입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역 농가들은 최근에 생산자 재비와 난방비 등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던 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폐지되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대신해 농식품 및 농업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편성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통합조직 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해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간접보조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는 수출농가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간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 대책 수립을 너무 늦게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수출농가와 업체,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실질적인 대안 검토를 촉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특자도 도시브랜드 개발 한 축’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도민참여단 ‘전북+’의 발족식이 열렸다.

“전통주 시장 규모 5년 만에 4배 급증”

지역특산주가 성장 이끌어

전통주 시장 규모가 5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효영 의원(당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국제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주 출고액이 지난 2018년 456억원에서 지난해 1,629억원으로 360% 급증했다. 지역별 출고액 비중을 보면 강원도가 21.2%(346억원)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전북(15.8%, 257억원), 전남(12.2%, 199억원), 경북(11.9%, 194억원), 충남(8.5%, 139억원) 순이었다. 전통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것은 지역특산주였다. 민속주는 2019년 이후 출고액이 매해 감소했지만, 지역 특산주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출고액이 늘었다. 2018년 336억원에서 2019년 410억원, 2020년 507억원, 2021년 832억원, 2022년 1,523억원으로 5년 사이 450% 증가한 출고액을 기록했다.



안효영 의원은 “전통주 시장에서 비수도권 다섯 개 지역이 전체 전통주 출고액의 77.8%를 차지했다”며 “전통주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일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는 만큼 해당 지역 농산물 소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주 시장의 활황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농산물 소비 촉진, 지역 특산물 홍보까지 폭넓은 효과를 내는 만큼 농림부가 젊은 층과 해외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심 제고 및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주류 시장에서 전통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역 양조장 육성에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

23일까지... 도정·교육·학예 행정 등 질문 내년 예산 편성 위한 동의안·조례안 등 처리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1일부터 제40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1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11일 개회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130건을 심사하고, 19일과 20일 이틀간 9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23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질문으로 출자·출연 동의안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돼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고 2023년 마지막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 대상 도정질문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11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서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실시 후,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하고, ‘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

척 방안 이행 촉구 건의안’ 등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정책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8일까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2023년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이정진(남원1)·김이재(전주4)·이병철(전주7)·김희수(전주6)·이병도(전주1)·문승우(군산4)·김명지(전주1)·김만기(고창2)·서나연(전주9)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각각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을 벌인다. 마지막으로 23일 본회의에서는 11일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출자·출연 동의안 등 각종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김재훈 기자

박용근 도의원, 리드믹휴먼케어 인재양성 협약 이끌어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은 지난 7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리드믹휴먼케어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이끌었다고 10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협약식에는 전북대의 임희정 특임교수(리드믹휴먼케어 아카데미 센터장), 권대규 교수(바이오



메디컬공학부, 창업지원단장), 남해경 명예교수(한옥건축학과)와 박우아 한국리드믹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Michael Schmack (오스트리아 빈 국립 공연예술대학 리드믹학과 교수), Guangyu Fan(상하이 이공대학/광저우공과대 교수), Mo Li(화동사범대학 음악교육연구소 소장), Ruchang Zhou(플래밍 예술교육 컨설팅 대표이사), Liang Zhu(드레스덴 헬레리우 리드믹 협회 이사) 등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순창군의회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국민 의견수렴

2023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순창군의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실시합니다.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23. 10. 10. ~ 10. 31. (22일간)

| 의견내용 | 군정 시책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불합리한 행정행위 사례 등

| 제안방법 | 순창군의회 홈페이지(www.sunchangcouncil.go.kr), 우편·전화·방문접수

| 연락처 | 순창군의회 063)650-1032